

# 광주 신학기 독감 비상... 일부 학교 긴급휴업

## 수원지구 새별초·병설유치원생 확진 급증 나흘간 문닫아

## 중학교도 환자 크게 늘어... 학부모들 “예방 허술” 불만도

광주시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가 독감 확진자가 검출될 수 없이 급증하면서 18일부터 나흘간 ‘긴급 휴업’에 돌입했다. 광산구의 한 중학교도 독감 환자가 수십 명씩 쏟아지는 등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에 독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이 올 초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긴급 휴업 사태를 불러와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독감 유행을 막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산구 흑석동의 새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18일부터 나흘간 긴급휴업에 들어간다. 신학기를 맞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학부모 불편 가운데 긴급 휴업에 돌입하는 이유는 다른 아닌 독감 때문이다.

이 학교는 3월 초 방학이 끝난 뒤부터 독감 환자가 하나 둘 나오더니 급기야 17일 하루 동안에만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학교장은 이날 현재 독감 확진으로 출석정지가 내려진 학생만 37명으로 지수자 독감 확산 방지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초등학교, 유치원 모두 긴급휴업을 결정했다.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광중의 경우 최근 독감 확진자가 29명까지 치솟았지만 이날은 16명으로 기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광주에서는 최근 10일간 88개교(초중고)에서 279명의 독감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186명(초중고)의 독감 확진자가 나왔다.

이처럼 학교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긴급 휴업에 들어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과 교육당국이 독감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에 소극적이거나 허술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고열(38도 이상), 기침,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면밀히 하면서 독감 검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휴업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독감 확진자 발생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지만, 독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독감과 단순 감기의 차이가 없어 일선 학교에서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에서 독감 확진자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새별초 관계자는 “휴업 결정으로 700여명의 학부모들께 큰 불편이 있을 줄로 안다”면서 “독감으로 학교가 긴급휴업한다는 게 무척 이해적이지만, 독감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학교 측 결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4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2016년 11주차)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29.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의심환자 수는 지난 8주차 46.1명, 9주차 43명, 10주차 32.1명 등 감소 추세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11.3명)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초·중·고등학생이 많은 7~18세 연령대에서 의심환자가 1000명당 57.6명으로 가장 높았다. 1~6세(37.7명)가 뒤를 이었다.

김정호기자 khk@kwangju.co.kr



불 지르고... 화재 진압훈련 ‘리얼하네’ 17일 오후 광주동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철거예정인 광주시 동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동부소방서는 양초 등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불을 내 진압훈련을 진행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경찰이 ‘웃 도둑’ 도와준 까닭은

### 광주북부경찰, 10대 조사중 “너무 추워서...” 딱한 사정애 복지기관과 연결해 주기로

“너무 추워서 흠뻑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가의 점퍼를 훔친 최모(18)군을 조사하던 광주북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직원은 최군의 딱한 사정을 듣고 ‘피의자이지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창 또래들과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인 최군은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의 꿈을 접었다. 이후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냈다.

최군은 어머니를 일찍 여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63), 3명의 동생과 남구 월산동 한 허름한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월

세 45만원을 내는 것도 벅겁다. 이런 탓에 최군의 동생 1명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최군의 집을 직접 방문한 북부경찰서 직원들은 잡동사니로 가득한 집안을 보고 또 한번 놀랐다. 최군의 체격도 또래보다 왜소한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최근 동생들의 건강도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생각 끝에 최군 가족을 복지기관과 연결해 주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국제구호개발재단인 굿네이버스 광주지사와 협의 중이다.

경찰은 “최군이 학업에도 욕심이 있다고 해 앞으로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군은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8분께 북구 신안동 한 초등학교에서 A(13)군이 벗어놓은 40만원 상당의 점퍼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검찰, ‘전공노 가입 투표’ 광주시 공무원노조 수사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공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를 놓고 행자부와 노조가 고발·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시검은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가 재개되는 21일 이전 고발인(행정자치부)과 광주시노조위원장 등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투표가 미뤄지고 갈등과 혼란이 지속하면 업무차질과 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노조는 9~11일 일정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를 진행하던 중 광주시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1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다. 노조는 투표를 21일 재개한 뒤 4월8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광주시노조 조합원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정부가 금지한 ‘성급고 재분배’를 주도한 혐의로 함께 받고 있다. 행자부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이들 14명을 중징계하라고 광주시에게 이날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예산 횡령·부당 사용 혐의 수협 조합장 등 7명 송치

전남지방경찰청은 수협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목포지역 한 수협 조합장 A씨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협 대의원과 여촌

계장이 참여한 선진지 견학행사에서 500만원을 여행사에 따로 건네 유증비용으로 집행하게 하고, 매년 4월말 풍어제 행사의 외부 잔조금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A씨의 지시로 각 부서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연관성이 없이 100여만원 결재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다른 사람 주소로 피자 주문 뒤... 배달원 오토바이 훔쳐 도주

○...다른 사람의 주소로 피자를 주문한 뒤 인근에 숨어있다가 배달원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60대가 소고랑.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61)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경북 구미시 한 빌라 앞에서 피자를 주문한 뒤, 박모(45)씨가 배달을 위해 건물

로 올라간 사이 배달 오토바이(600만원 상당)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 ○...물품 대금을 받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김씨는 훔친 오토바이와 변호판을 이용해 도피 생활을 했는데, 경찰은 “김씨가 배달 직원들이 오토바이 사동을 켜두고 배달을 하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유엔 제재대상 북한 화물선 여수 앞바다 통과

### 해경 함정 2척 출동 밀착감시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이 여수 앞바다를 통과했다. 국민안전처와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오전 11시45분께 유엔의 ‘북 자산동결 선박’인 ‘오리온스타’호가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 들어와 이날 오후 4시15분께 통영해역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15일 오후 3시께 북한 남포항을 출발, 오는 20일 오후 7시께 청진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스타’호는 지난 15일 오후 9시부터 우리 해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

으며, 17일 오후 8시께 우리 영해를 벗어났다. 여수해경은 외교부의 대응방침에 따라 소속 경비정 508함 등 2척의 함정을 출동시켜 밀착 감시했다. 국민안전처 등은 2389t급 몽골 국적 선박인 이 화물선에 북한인 승선원 19명과 무연단 3600여t을 실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몽골 국적이지만 북한 소유의 선박으로 확실시된다”며 “무해통항 선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물선의 운항 경로만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죽음 부른 대학생의 ‘만취 운전’

### 충돌 사고로 동승 2명 숨져

만취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던 20대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17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40분께 무안군 무안읍 한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신모(20)씨가 운전하던 로제 승용차가 도로변 화단과 신호제어기를 잇따라 들이받고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신씨와 함께 타고 있던 같은 대학교 선후배 A(21)씨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신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한 대학교 학생인 이들은 이날 학교 인근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신씨는 경찰에서 “왜 운전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 커피숍 매매

#### 북구 우산동 상업지역

□ 유동인구 많음, 시설완비, 현 상업중 (커피, 식사, 맥주 판매가능)

보증금 200만 월세 100만

### 커피숍 매매

전대 정문 모아 A.P.T 후문 앞 코너

□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

시설 완비, 코너자리, 원룸촌 내 위치 (커피, 식사, 맥주 판매가능)

(※ 주인직매) 010-6670-9800

###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 (사무실 및 오피스가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 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 좋음)

010-7384-7800

###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 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	1.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 토지 평당 180만원 1층~2층 주택 (2층 주택 월세 30만 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5백만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 건 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2. 남구 양림동 (토 40평, 건 25평) 학강초등학교 북서측, 근간차량가능 감정가 7천만 → 최저가 7천만
3. 서구 봉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 건 131평) (1층~3층 총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3. 동구 산수동 (토 42평, 건 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대응도실 약 6평 별도있음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 8백만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1. 북구 일곡동 (토 52평, 건 72평) ※ 1층 점포 2층 주택 코너자리 감정가 1억9천8백 → 최저가 1억9천8백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 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 가능, (5층 총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2.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 2천
	3. 동구 계림동 (토 55평, 건 175평) ※ 총 침포 2중~3중 사무실 층주택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4. 동구 중흥동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경매 이체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만 (오전, 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인분. 부동산 경매 관심 인분. 가족처럼 일하십시오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